

# 예언의 완벽한 성취예수님의 족보

## 예수님의 족보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세리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레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1:1)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창 22:18)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세계 민족들에게 축복이 될 메시야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메시야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먼저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특별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대상17:11-12)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와 다윗의 왕위에 앉을 메시야에 대한 예언은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자신이 메시야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구약적 배경을 잘 알고 있는 마태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 메시야의 두 가지 요구 조건을 예수님은 충족시키고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족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시될 수 있는 의문은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출생했다면 왜 요셉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마태복음1:16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해결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요셉은 예수를 낳고”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의 족보(사실은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임)는 다윗과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다윗의 다른 아들인 나단(Nathan)으로 이어집니다. 마리아 역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지만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다른 아들인 나단의 후손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요셉으로 이어진 다윗 왕조의 혈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다윗 왕조의 씨이며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자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자가 된다는 사실에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족보는 여고냐(Jeconiah)를 포함하는 이스라엘 왕족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고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렘 22:30)고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는 왕족은 여고냐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여고냐의 계보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오셨다면, 예레미야 22장에 기록된 저주로 인해 다윗의 왕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단의 계보에 속한 다윗의 자손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된 예수님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민족은 요셉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왕족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요셉의 맏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셉의 계보이므로 다윗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일반적으로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음에도 이 족보에는 네 명의 여자가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명의 여인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덕스럽지 못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맨 처음 언급된 여인은 다말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1:3)

유다는 자기의 큰아들을 다말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와의 목전에 악했기 때문에 자식 없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풍습에 따라 그의 동생이 다말과 결혼했으나 그도 여호와와의 징계로 인하여 자식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에게는 셋째 아들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그로 하여금 큰 아들의 후손을 이어나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미 두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유다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아들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 유다를 유혹합니다.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다에게 다말은 증거물을 요구합니다. 약조물로 유다로부터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은 다말은 그와 동침하여 임신하게 되고, 자기 머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은 유다는 크게 화를 내며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앞에 끌려 나온 다말은 “이 물건 입자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나이다”라고 하면서 유다로부터 받은 약조물들을 보였습니다. 유다는 다말의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렇듯 시아버지와 관계하여 아들을 낳은 다말이 다윗 왕조의 족보에 나온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경에 처한 다말을 선택하셨습니다.

두번째는 라합이었는데 그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지나가야 할 곳인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방어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성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은 정탐꾼들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겼다가 창을 통해 도망치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라합은 이스라엘이 이 성을 취할 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기를 구했습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라합과 그녀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세번째 여인인 롯과 결혼하였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이스라엘의 계보에 넣으셨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1:5-6a)

세번째 여인은 롯인데 그녀 또한 이방(모압)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신23:3).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 여인 롯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 왕의 혈통을 잇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오벧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롯을 이스라엘의 계보에 넣으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1:6b)

네번째 여인은 이름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녀가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다윗 왕과 간음하고 임신하자 다윗 왕은 음모를 꾸며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밋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밋세바로 인하여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요셉의 족보에 허물 있는 여인들이 포함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실패와 흠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그분의 계획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엄청난 개인적 실패를 겪은 사람,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결함과 실패로 얼룩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즉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이름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수인 7의 두 배가 되는 14가 세 번 나오도록 함으로써 예수님의 족보에 완전수를 관련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1:8과 역대상하서의 기록을 대조해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누락된 이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요람과 웃시야 사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아합 왕과 그의 처 이세벨의 딸인 아달라의 아들로서, 아합과 이세벨은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달라는 다윗 왕의 모든 씨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명이 아달라의 손아귀에서 건져져서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달라의 자손들이 마태의 족보에서 빠진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완전수 7의 배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족보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마태가 실수로 그들을 빠뜨렸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태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의 기록과 똑같은 기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보에 속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1:16)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요셉의 자식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1:18)

요셉과 마리아가 육체적인 관계를 갖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려주는 과정이 좀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한 쌍의 남녀가 부부가 되기까지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정혼(engagement)이고, 둘째는 약혼(espousal)이며, 셋째는 동거(betrothal)입니다.

정혼은 어린 시절 그 어느 때라도 가능한 것으로 부모들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이를테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우리가 서로 잘 아니까 당신의 딸과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기로 약속합시다’라고 의견이 모아지면 당사자들이 아직 어린 아이일지라도 부모들간에는 정혼이 성립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15-16세쯤 되면 이들은 일 년 간의 약혼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서로 가까이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약혼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당사자들도 이 시기에 부모님의 결정을 받아들여 상대방을 자신의 배우자로 인정하고 결혼 준비를 합니다. 약혼 기간은 어떤 의미에서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약혼을 파기하려면 이혼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혼 기간이 지나면 함께 살게 됩니다. 결혼식날 밤에 신부의 아버지는 딸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흔적을 취해 상자에 넣어 보관합니다. 만일 사위가 결혼 후에 ‘그녀는 내가 결혼할 당시에 처녀가 아니었으므로 이혼하겠소’ 라고 한다면 딸의 아버지는 그 딸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흔적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사위가 거짓증언을 한다고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과의 약혼 기간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약혼기간 중의 부정, 다시 말하여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리아와 요셉이 직면하게 된 문제였습니다. 마리아는 의심할 여지없이 용모도 아름다웠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극히 아름다운 영성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결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녀를 택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영성의 깊이는 누가복음에서 그녀의 사촌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채 서로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찬가’(눅 1:46-50)는 마리아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리아는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으나 그녀의 갑작스런 임신으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이 일에 관계가 없음을 공적으로 밝히고, 그로 인해 마리아를 군중들의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고자 고민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을 때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습니다. 여담이지만 요셉은 예수가 장성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했던 것을 보아 요셉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돌아와 갈릴리에 정착했던 것은 틀림없으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셉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1:19-21)

21절의 ‘예수’는 ‘여호와, 즉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부르라고 한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분의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1:22)

이 구절을 볼 때 마태는 구약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으며 신약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기록한 성경을 두고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라 하였습니다. 신약성경은 성경이 기록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실질적인 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고전 11:23)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사 7:14)라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서는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이 예언을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며 다른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네시아라는 학자는 히브리어 ‘알마’를 젊은 여자(a young maiden)로 해석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사실을 왜곡시키려는 번역자들도 주네시아의 이 해석을 받아들여 ‘보라,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젊은 여자가 잉태하는 것이 무슨 표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표적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알마’를 문자 그대로 ‘처녀’의 의미로 의도하여 쓰신 것이 너무도 확실합니다.

주네시아와 그를 따르는 학자들은 이성적으로 추리하여 ‘알마’를 젊은 여자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학문입니다. 그는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알마’를 젊은 여자로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법칙을 초월할 수도 없다’는 전제 아래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200년 전에 70명의 학자들이,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바벨론 포로 기간과 귀환 이후에 상당 부분이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인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고 단지 학자들의 연구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알려면 학자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잃고, 더욱이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래로 헬라어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 당시 쓰이는 언어로 백성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에 70명의 학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 번역성경을 셉투어전트(Septuagint), 즉 칠십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된 칠십인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탄생 200여 년 전부터 백성들은 학자들의 도움 없이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기 약 200여 년 전에 희랍과 히브리의 학자들이 이사의 예언을 이해하여 히브리 단어 ‘알마’를 오직 처녀에 대해서만 쓰이는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사실과 마태 또한 칠십인역의 이 번역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록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사가 영감으로 메시야가 처녀에게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고, 이 사실을 신약성경이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이 원래의 의미인 ‘처녀’를 ‘젊은 여자’로 번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변경시키려는 참람한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인위적인 오역은 현대번역서에서도 수백 개나 발견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 감사 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포하신 근본적인 진리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1:24 -25 )

요셉은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첫번째 아기를 낳아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기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perpetual virginity)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 앓은 소리이며, 마리아를 신의 위치로 올리려는 사람들의 조작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요셉은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만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으며 그 후에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계속 처녀로서 자녀들을 낳았다면 성경은 실로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 예수님의 남동생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으며, 누이들도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13:55-56). 그러므로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라고 선언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 없이 만들어낸 교리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교리(dogma)를 조심해야 합니다.